

주부신행담 나는 부처님을 이렇게 만났다 ㉞

교 육원의 교육과정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 동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새롭게 정리한 것이 많았다. 규칙적인 수업시간은 해이해지기 쉬운 생각을 바로 잡아 주었고 과목마다 바뀌는 강사님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기대감과 재미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 신앙정진대회 중의 1080배 돌입여행 등등이 순수한 동심과 불심을 찾아 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나는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배어있는 뜻밖의 습관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거나 가슴이 아팠지만 좀더 나은 나를 위해 자신에게 확인해 본다.

그림이라고 느꼈다. 가정과 교육원과 사찰을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따라 가려고 노력했다. 향기로운 그들 속으로 불러들여 나를 머물게 한 부처님께 감사를 또 하고 싶다.

이와 같은 일을 기회로 여겨 마쳐 공부하지 못한 불자들이 계시다면 어느 곳에 머물던 좋은 자리를 찾아 공부하기를 바라고 훌륭한 불자, 좋은 인연으로 거듭 나길 바란다.

몇 년전부터 '현대불교'를 감사한 마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불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식탁에서 여러 종류의 그릇을 이용하고 수저가 밥과 반찬을 옮기는 것처럼 말이다. 청소할 때 필요한 게 따로 있고 화분에 물을 때 바가지보다 물뿌리개를 사용하면 물이 넘쳐남이 없이 뿌리듯 잘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표가 없는 집다한 일거리 때문에 힘이 들지만 따증을 내기 전에 일심으로 하다보면 나도 몰래 집중력과 재미가 생겨나고 다른 복잡한 생각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점찍고 싶지 않다
다만 원망 적게 기쁨 많아지게 노력하며
일심으로 일을 하니 편안하고 재미있다**

음으로 보고 있다. 대형 큰스님의 길을 걷는 이에게 여 주시는 불사사의한 표정은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는데 단비를 내려 주신이라 생각한다. 남자는 기억에 없지만 어떤 불자의 질문에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전기 스위치를 콘센트에 꼽듯이 마음의 콘센트에 확실히 꼽으라는 말씀이 불자의 첫마음인 신심의 본바탕에 어둠을 할나에 밀어내는 전기불의 밝을처럼 밝한 기쁨을 느꼈다. 이 기쁨은 오래 지속되었고 지루하거나 나태함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고 좀더 강렬한 전자기장을 가지게 되었다. 콘택트콘센트에서 빠져 있는 스위치를 보지만 고르워 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바로 무엇을

언제 떠났는지 편안함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 복잡한 생각이 곧 번뇌요, 편안함이 곧 공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충실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 우리집은 아파트인데 큰딸이 대학에 가면서 바워진 방이 있다. 바로 비우면 깔끔하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어 헹가 바린 뒤 한 벽에다 관음도를 모시고 기도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똬지 모를 부끄럼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백팔대장경을 보면서 정진하는 남편의 신심에 감동을 느끼면서 충만한 기도가 계속되어 갔다. 삼천배를 꿰고 다리를 굽면서

오는 남편은 다시한번 더 나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늘도 '나 절할까?' 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의 아침은 시작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잘못을 보게 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아이의 잘못을 느끼게 하고 혼을 내야 되는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 저녁에 아이를 불러 충분한 얘기를 나눈 뒤 잘못에 대한 반성을 어떤 방법으로 풀지 생각을 말하게 하였다. 잠시 생각을 하던 아이는 백팔번 절을 하면 안되겠냐며 눈치를 보면서 제안을 했다. 삼천배의 참회기도는 풀이 낫지만 초등학교 6년이면 13살인데 절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이에게 잘게 인식되어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싶어 마음속으로 호호했다.

절에 잘 때는 아이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자연스런 습관이 있는 것 같다. 토요일 오후에는 골목사에서 선무도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이지만 법당에서 스님의 구령에 맞춰 수련하는 모습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아이가 수련하는 동안 나는 숲 속에 죽 앉아서 지내는데 초저녁달은 하늘에 걸려 있고 이튿날 새벽은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을 묵묵히 불러 보는데 땅방울 속으로 찾아드는 밤방울은 정말로 감미롭다. 아이의 턱을 보 셈이다. 남편과 나 그리고 아이들은 자꾸씩 곱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부처님이 불법을 믿고 배우며 행하며 노력하며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 애쓰는 보통 불자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본다면 어떤 집과도 다를 바 없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성내고 다두고 원망도 한다. 단지 애쓰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하고 성내고 원망하는 것은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집착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때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는 데 그러면 기쁨은 맞배로 커지면서 확실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이 믿을



그림 · 이준석

은 무명의 고통과 번뇌방향을 사하는 예정이다. '내 몸 귀'라고 보내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말이다. 딸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며 보내는 답장 메시지는 몇 번을 읽어도 좋다. 아들이 합숙수련 때 아침예불 후 명상시간에 출현을 하는데 일과중 가장 힘든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하면서 명상시간을 보내느냐고 물어보니 '절에 절할까?' 하는 생각 하나만으로 했다가에 웃은 적이 있다. 맑고 티없는 아들의 화두라 생각했다. 나도 아플처럼 해 본다.

김민희(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판매 : 인터넷 불교 특화점 마이불 ■제조사 한국조폐공사

•전화 : 02-732-1522 / 737-8881 •팩스 : 02-737-0697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기적을 사랑하십니까? 건강 잠자리로 바꿔주세요!!

리빙스톤 “요람 침대” (맥반석, 옥 물침대)

▶ 최고의 안락함! 바로 그 침대
▶ 최고의 편안함! 바로 그 침대
▶ 최고의 쾌적함! 바로 그 침대

▶ 특이점 (특징)
① 젖먹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②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③ 유해전자파, 수액과피, 펀드기 공보에서 원천 해방
④ 침대 바닥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⑤ www.kipa.org 특허기술센터, 클립, ▶ 검색어 (동향토침대)

▶ 판매처 : 인터넷 불교 특화점 마이불

본사 · A/S : 02)424-9427, 2203-7821

신시대(新時代) 신세대(新世代)를 위한 신행수첩!

진작에 이런 경전이 나왔어야 했다.

선물용(贈物用)으로 최적(最適)!

- 시스템 다이어리식으로 기획·제작되었다.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하다.
- 불자(佛子)들이 원하는 내용은 거의 망라되었다.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물에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에 인쇄되었다.
 - YUPO지에 인쇄되었다.
- 가로쓰기에 내용이 미려하다.
 - 원색인쇄를 했다.



- 중요내용을 찾기가 아주 쉽다.
 - P.V.C. 인덱스를 다섯부분으로 배치하였다.
- 법당에서 독송하기 편하다.
- 신행생활(信行生活)에 유익한 공간이 기획되었다.
 - 신행생활(信行生活)과 성지참배기(聖地參拜記)를 요약기록할 수 있다.
- 내용을 재구성 하기가 편리하다.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물에 젖지도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지에 원색인쇄로 미려하게 인쇄했다.

